

첨단산업 경쟁력은 ‘사람’...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 키운다

김영훈 장관, 한국광기술원 방문... 인력양성 간담회 공동훈련센터·폴리텍 활용...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로 전남광주특활특별시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 수요에 맞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광주특활특시 북구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지역 반도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장의 인력 공급에 대해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맞춰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는 만큼 산업 성장 속도에 맞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 장관은 VR 교육장과 메타인클루스 등 반도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공동훈련센터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이러 기업들의 인력 공급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 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지역 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위해 지역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와 공동훈련센터 기능 강화, 제작자 직무전환 교육 확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요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청년들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과 한국폴리텍대학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남광주특활특별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은 지방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전남광주특활특별시 북구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지역 반도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남광주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출발점”이라며 “서남권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공정 조성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인력이 전남광주지역에서 길러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도 인재 확보와 양성,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반도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지역 특화 고용서비스 운영 현황과 노동·산업안전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사항도 점검했다. 광주노동청은 석유화학·철강·가전 등 주력 제조업 전체에 대한 중장년 특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상습 임금체불 근절과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건설현장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떨어짐·맞음’ 사고 사망자를 전년 동기 대비 30%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점검과 폭염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제안에서 출발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기술로 성장, 감성으로 연결’... 여성기업주간 개막

지역 여성 기업인 성과 조명... 9일 광주·16일 전남서 기념식

광주·전남 여성기업인들이 혁신과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제5회 여성기업주간 기념행사가 이달 9일부터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지역 여성기업인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기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2일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 주간 표어는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공감 리더십으로 시장과 소통해 온 여성기업인들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와 결의를 담았다.

제5회 여성기업주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

식,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MD(Merchandiser·상품기획가)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또 7월 한 달 동안 여성기업 온라인 공동 채용관, 여성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여성기업주간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주 JS웨딩컨벤션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기념식을 개최하며, 전남지회는 16일 오후 4시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기념식을 열어 지역 여성기업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주간 기념식에는 여성기업인과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산업훈장 등 모범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부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대한오케이스틸㈜ 김연선 대표가 금탑산업훈장, 농협회사법인 한만두식품㈜ 남미경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연선 대표는 47년간 철강 산업에 몸담으며 방연 철강제 제조 및 유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총남 당진과 경남 김해 등 지역에 제조 기반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미경 대표는 갈비만두와 주꾸미만두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방동만두 시장을 개척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수많은 여성기업인은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지력을 확인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unzi@gwangnam.co.kr

기아, 중형 세단 ‘The 2027 K5’ 출시

고객 선호 사양 중심 편의·안전·상품성 강화

기아가 브랜드 대표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5’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The 2027 K5는 고객 선호 사양이 트림별로 기본 적용돼 전반적인 상품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고객에게 더 나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The 2027 K5’의 모든 트림에 신규 사양인 100W C타입 USB 단자와 케이블을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뒷좌석 높이조절 헤드레스트와 센터 암레스트를 기본 적용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더

욱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인기 트림인 베스트 셀렉션에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으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기아는 ‘The 2027 K5’의 출시를 기념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금융 프로그램과 구매 혜택을 함께 마련했다.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는 3.6% 금리에 차량 구매가의 최대 64%를 3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 월 납입금을 최소화해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7 K5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핵심 사양을 기본 적용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세단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 포항철강산업대전
Pohang Steel Industry Fair

제10회 스틸에세이 공모전

공모기간 2026. 7. 1. (수) - 8. 31. (월) 18시까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발표 2026. 9. 18. (금)

시상식 2026. 10월 중

공모대상 전국 일반부 / 청소년(중·고) 동일 연령 청소년 응모 가능
에세이·포토에세이: 전 국민 누구나(등단작가 제외) / 1인당 3편까지 제출 가능
(단 수상은 1인 1 작품에 한함)

공모주제 "철, 도시를 잇다"

작품규격 에세이: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맑은고딕 12pt)
포토에세이: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맑은고딕 12pt)+사진 1매, 각각 다른 작품 3편까지 제출
(공모자 본인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200자 원고지 3~5매 내외의 창작물)
※ 매일 접수시 hwp, hwpx, docx 파일만 인접(pdf불가)
※ 포토에세이는 원고와 사진 jpg 형식 파일을 각각 첨부할 것

접수방법 메일: munhak@kbmaeil.com
우편: (37735)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포항철강산업대전 운영위원회
※ 반드시 작품명,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기재
※ 디지털 형식이 있을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심사서 제출

시상내역

구분	포토에세이	구분	에세이(일반)	구분	에세이(청소년)
대상(1명)	100만원	대상(1명)	100만원	대상(1명)	80만원
금상(1명)	80만원	금상(1명)	80만원	금상(1명)	50만원
은상(1명)	50만원	은상(1명)	50만원	은상(1명)	30만원
동상(1명)	30만원	동상(1명)	30만원	동상(3명)	10만원
기적(3명)	10만원	기적(3명)	10만원		

*제출자료 수송비 부담

기타사항

- 공모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와 경쟁매일신문, 포항철강산업대전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수상자에 한해 일종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응모작은 응모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 표절·모방·각색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이 아니어야 하며, 저작권 관계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동일한 원고로 다른 매체에 중복 투고 및 발표하거나 표절 경우 당선 발표 이후라도 취소함
-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당선권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 경북매일신문 054-244-0079)

주최 주관 경북매일신문